



전주고등학교

전고 · 북중 총동창회



전주고, 고위공무원단 '1위'

총 44명... 경북·대전高 제쳐

고위공무원 중 전북출신 고교 비율은 얼마나 될까?

민주당 이용섭의원(광주광산을)이 4일 고위공무원단 지역별 출신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출신 고교 공무원은 총 1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천466명 중 7.16%로 무려 62.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영남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적은 비율이다.

충청권은 146명(9.9%), 경기 54명(3.6%), 강원 51명(3.4%) 등이었다. 반면 상위 10개 출신 고교에서는 전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고위공무원단 상위 10개 출신 고교별 비중은 전주고가 경기고와 함께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주고는 지난해(48명)에 이어 1위를 차지해 공무원 배출 명학으로서의 명성을 다시한번 떨쳤다. 전주고와 경기고에 이어 경북고와 대전고가 38명으로 그 다음을 광주제일고 31명, 검정고시 29명, 서울고 25명 등의 순이었다.

또 지방대 출신으로는 전북대 14명, 원광대 4명, 전주대 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대학 출신은 215명으로 전체에 14.6%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은 기자

Be proud of Jeongo, as Jeongo is proud of you!